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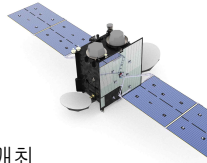
2024년 1분기 국내외 위성 관련 정책 및 산업 동향

< 목 차 >

I. 위성 관련 국내·외 정책 및 제도 동향

1) 국 내

1. 우주청 신설법 국회 통과 ... 이르면 5월 우주청 설립
(원문) <https://www.hellocdd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3041>
2. 군, 올 4·11월 정찰위성 2·3호기 순차 발사...대북 감시능력 강화
(원문) https://mcbile.newsis.com/view.html?ar_idx=NS20240318_0002655182
3.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 만든다...2027년부터 5대 발사
(원문) <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75324022>
4.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·민간발사장 구축...올해 9923억 투자
(원문) <https://www.daejoniibo.com/news/article/view.html?idxno=2122183>
5. [보도자료] 국산 소자·부품 우주검증위성 탑재체 설명회 개최
6. [보도자료] “우주항공청-NASA, 본격적인 우주협력 시동”
7. [보도자료] 한-일 간 위성항법분야 협력의 첫발을 내딛다



2) 해 외

1. [미국] 美, 중·러 군사 위성 공격 대비 박차...우주 전쟁 시대 본격화
(원문) <https://www.donga.com/news/Inter/article/all/20240216/123548171/1>
2. [중국] “전쟁에 필수” ...중국, 자체 저궤도위성 2만3000여기 발사한다
(원문) <https://www.secdaily.com/NewsView/204490703>
3. [러시아] 러시아, 인공위성 파괴해 세계 마비시킬 우주 핵무기 개발 중
(원문) https://news.jtbc.co.kr/News/Article.aspx?news_idx=12165860
4. [일본] 일본, 30년만의 신형 로켓 H3 발사 성공
(원문) https://www.hani.co.kr/arti/science/science_general/1128712.html
5. [북한] 남북한 다음달 또 ‘우주경쟁’ 전망...각각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움직임
(원문) <https://www.voakorea.com/a/7542764.html>

II. 위성 관련 국내·외 기술 및 산업 동향

1) 국 내

1. [LIG빅스원] LIG빅스원, 로봇에 이어 AI 위성 영상 분석업체에 투자
(원문) <https://www.yna.co.kr/view/AKF20240327167100003>
2. [한화시스템] 한화시스템, ‘위성의 눈’ 기술로 K스페이스 시대 연다
(원문) <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4030444601>
3. [한컴인스페이스] 한컴인스페이스, 세종 2·3호 위성 추가 운영
(원문) https://www.g-enews.com/article/ICT/2024/03/202403290819548409ea588b1547_1
4. [포획기술] ‘그래비티’ 우주미아는 현실...한국도 위성 잡는 ‘포획위성’ 개발 나선 이유
(원문) <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science/2024/03/21/00TMLJGJDNCTNLXXLFB0JF3Y/>



2) 해 외

1. [美 AST 스페이스모바일] AT&T, 구글, 보드폰, AST 스페이스모바일에 1억5천500만 달러 투자
(원문) <https://kr.investing.com/news/stock-market-news/article-9304991989>
2. [美 스타링크] 스타십 49분 비행 생중계한 스타링크 위성, 6000개 돌파
(원문) <https://biz.chosun.com/science-chosun/technology/2024/03/16/MFT5BNUEJDMH.TWC5/ZQAF4KU/>
3. [日 스페이스웍스] 일본 최초 민간로켓 폭발...'북 미사일 정보수집' 위성 탑재
(원문) <https://www.yna.co.kr/view/MHF20240313013400704>

I. 위성 관련 국내·외 정책 및 제도 동향 보도자료

국내-5

국내 소자·부품 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자·부품 우주검증 기회 제공

원문: '24. 3. 13.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

■ 국산 소자·부품 검증위성 개발 본격 착수, 3회('25년, '26년, '27년)발사 예정

■ 한 개의 검증위성 당 최대 8개 기업체의 소자·부품 검증 지원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'과기정통부')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원장 이상률, 이하 '항우연')은 『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지원사업』을 통해
 - 국산 소자·부품의 우주검증을 위한 위성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, 이 위성에 탑재할 『탑재체(소자·부품) 설명회』를 2024년 3월 14일 개최함

■ 위성체계 개발 기술력은 선진국 수준이나 소자·부품은 주로 수입

-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, 천리안위성, 다누리와 같은 다양한 국가임무위성과 탐사선 등의 개발로 위성체계 개발 기술력은 우주개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반면,
 - 가혹한 우주환경으로 인해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소자·부품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해 왔음
 -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방사능, 급격한 온도 변화, 고진공 등에서도 견딜 수 있는 높은 신뢰도의 국산 우주급 소자·부품의 개발과 우주검증이 필수적임
- 이에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'국산 소자·부품 검증위성'을 통해 국산 전기·전자 소자급 부품의 우주환경에서 실제 우주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임
 - '국산 소자·부품 검증위성'은 반도체 개발 성과물을 우주용 부품으로 활용하고, 비우주용 소자·부품을 우주환경에서 시험하여 우주용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

- 이 위성은 16kg정도의 12U(전자레인지 정도 크기, 1U=10cm X 10cm X 10cm)급 큐브위성이며, 국내 기업이 개발한 소자·부품을 보드 및 모듈 단위로 최대 8개까지 탑재하여 우주검증에 사용함

■ 첫 검증위성은 25년 누리호 4차 발사 때 발사 목표

■ 위성의 탑재체 공모는 발사 전년도 상반기로 계획

- 국산 소자·부품 검증위성은 '25년 첫 발사(누리호 4차 발사)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하며,
 - '26년에는 소자·부품 검증위성 2호기, 2027년 소자·부품 검증위성 3호기를 발사할 계획임
 - 올해 6월까지 1호기 탑재체의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, '25년 상반기와 '26년 상반기에는 2호기와 3호기 탑재체 공모 및 선정을 진행할 계획임
- 1호기 탑재체의 공모 및 선정을 위한 금일(3월 14일) 설명회에는 자체 개발한 탑재체(소자부품)의 우주 검증을 희망하는 50여 개 기업·기관이 참석할 계획임
 - 설명회에서는 국산 소자·부품 우주검증 지원사업계획, 전기·기계적 인터페이스와 같은 탑재체의 요구사항과 환경시험 조건,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
 - 기업들과 자유로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임

■ 기술 경쟁력 및 자립도 향상으로 국산 소자·부품의 판로 개척에 긍정적 효과 기대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“본 사업을 통하여 국내에서 개발되는 소자부품의 우주검증과 우주 헤리티지 확보를 통해 기술경쟁력과 기술자립도가 향상되고,
 - 나아가서는 국산 소자부품의 판로 개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”이라는 기대를 밝혔다

국내-6 “우주항공청-NASA, 본격적인 우주협력 시동

원문: '24. 1. 29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

■ 과기정통부 1차관, 미국 우주기술개발 핵심기관 방문

■ 美 NASA와 아르테미스 달 탐사 협력 논의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미국과의 긴밀한 우주협력을 보다 가시화하기 위해
 - 미국 우주정책과 우주기술개발의 핵심인 미 항공우주청(이하 ‘NASA’), 미 국가우주위원회(이하 ‘NSpC’), 제트추진연구소(이하 ‘JPL’) 등을 지난 1월 23일(화)~24일(수) 방문,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음
-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과 美 NASA 팸 멜로이(Pam Melroy) 부청장은 1월 23일 면담에서 아르테미스 달 탐사 협력에 관해 논의했음
 - 이는 작년 4월 과기정통부와 NASA 간에 체결한 ‘한미 우주탐사·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서’의 후속조치로, 양측은 구체적인 연구협력 아이টে를 발굴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음
 - 한편, 양측은 우주항공청 개청 직후 우주항공청과 NASA 간에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음

■ 한국의 우주항공 정책은 ‘경제적 가치 창출’과 ‘일자리 제공’에 있다고 설명

- 이 자리에서 팸 멜로이 부청장은 한국의 우주항공 정책의 방향성과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질문했고,
 - 조 차관은 “우주경제 시대를 넘어 우주산업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가시적으로 창출하고,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”이라고 설명했다

- 아울러, 양측은 한국이 강점을 지닌 모빌리티, 이차전지, 5G, 자율주행, 원자력 기술 등을 우주탐사에 적용, 월면차, 달 통신망 구축 등의 분야를 장기 협력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음

■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면담, JPL 한인연구자와 간담회 가져

- 미 백악관 우주위원회 시라크 파리크(Chiag Parikh)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조 차관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항우연, 천문연과의 관계 등에 설명했다
 - 시라크 사무총장은 한국의 우주항공청 설립에 강한 기대를 표명하면서, 작년 한미 우주산업 포럼에 참석, 각국의 산업계가 함께 협력할 때 얼마나 큰 강점을 가지는지 확인했다면서,
 - 정부가 산업 간 협력의 장애물을 타파하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
- 한편, JPL을 1월 24일 방문한 조 차관은 JPL 측으로부터 화성탐사선 로버, 심우주 통신 등 연구소의 R&D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,
 - 근무 중인 한인 과학자 20여명과 우주항공청의 운영방향, 연봉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으며, 우수인재 유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음

■ 1차관은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이 관건이며

■ 대한민국의 달려진 우주 위상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밝힘

- 과기정통부 조성경 1차관은 “우주항공 분야는 한 국가가 홀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이 관건”이라면서
 - “이번 미국 우주관련 핵심기관 방문을 통해 달라진 대한민국의 우주 위상을 확인했다”고 말했다
 - 또한, “인류에게 기여할 국가 간 우주협력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적·물적 자원의 적극적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밝혔다

국내-7 한-일 간 위성항법분야 협력의 첫발을 내딛다

원문: '24. 3. 26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

■ 한-일 위성항법 협력약정 체결 및 제1차 기술작업반 회의 개최

■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KPS개발 중이나

■ 일본 위성항법위성 4기를 이미 운용 중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3월 26일(화) 서울에서
 - 일본 내각부와 「지역위성항법시스템 협력에 관한 협력약정*(이하 'MoC)」을 체결하고,
 - '제1차 KPS-QZSS 기술작업반 회의'를 개최했다고 밝혔다
- * 정식명칭 : Memorandum of Cooperation Concerning Cooperation in Regional Satellite Navigation Systems
-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·항법·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(Korean Positioning System, 이하 'KPS') 개발을 2022년부터 추진 중임
 - KPS의 원활한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는, 이미 위성을 발사하여 서비스 중인 기존 위성항법시스템과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임
- 일본은 QZSS(Quasi-Zenith Satellite System, 이하 'QZSS')라는 위성항법시스템을 200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, 현재 위성 4기를 운용 중임
 -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국 시스템 간의 조화로운 개발·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번 MoC를 체결하게 되었음

■ 기술작업반 회의는 실무적 협의를 위한 것

■ 작년 과기정통부가 시작하여, 우주항공청이 이어받을 것

■ 향후 유럽·인도 등 다른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국가와도 협력 확대

- 이번 MoC는 KPS와 QZSS 간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, 이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기술작업반(Technical Working Group) 구성 등을 담고 있음
 - 또한 향후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,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출범 후에는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로 하였음
 - 동 MoC에 우리나라는 KPS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위성항법개발전략팀장이, 일본은 QZSS 개발·운용을 총괄하는 내각부 국가우주정책사무국 준천정위성시스템전략실장이 각각 대표로 서명하였음
- MoC 서명식 이후 양국은 '제1차 KPS-QZSS 기술작업반 회의'를 개최하여
 - KPS와 QZSS 개발 현황을 상호 설명하고, 양국 시스템 간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들도 논의하였음
 - 이를 통해 양국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, 향후 실무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였음
-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"작년 미국과 KPS-GPS 기술작업반을 출범한 것에 이어, 올해는 일본과 협력을 시작하였다"면서,
 - "향후 유럽·인도 등 다른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국가와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"고 밝혔음